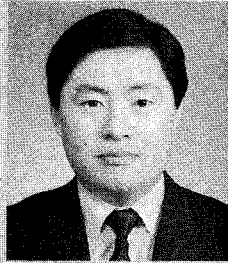


# 번식장애란...



기 획 과  
대 리 서 병 섭

낙농가라면 누구나 안고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젖소의 번식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젖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급여, 환경적인 개선등, 여러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유의 생산을 하기 위해 1년 1産을 통한 생산성은 영원 변치않을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농축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점점 고유량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번식에 대한 문제와 그대책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1. 번식장애

먼저 번식장애란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번식이 않되는 상태를 말한다. 생식기의 이상과

질환에 의한 번식장애라는 것은 「불임증」이라고 하는 증후군 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난포낭종과 황체낭종 등의 난소질환, 자궁내막염과 자궁축농증등의 자궁질환, 질염과 질탈등의 질진환등이 포함된다.

번식성적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낙농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젖소의 번식생리를 이해하고, 번식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포함한 세심한 번식관계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 증 상

성성숙의 시기(생후 12개월정도) 또는 분만후의 생리적 공태기(분만후 40일 정도)를 경

과해도, 난소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발정징후가 없고, 무발정과 이상발정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발정이 발견되어 수정시켜도 자궁과 그외의 이상으로 인해 수태 되지 않게 된다.

한편, 번식장애 가운데는 「발정징후가 없고 무발정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든지 「정상적인 발정이 발견되어 수정하였지만, 수태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축주에 대한 발정 발견을 못 본 결과 등 또는 적기 수정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등의 「인위적인 번식장애」가 상당수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 인

번식장애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고, 생식기의 이상과 질환, 호르몬 결핍 문제뿐만 아니라 사육환경과 사양관리의 불량, 유전적 이상, 영양장애 등의 문제도 관여하고 있다.

## 치 료

### (1) 낙농가의 처치

성성숙의 시기와 분만육의 생리적 공태기를 지나도 발정징후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수의사에 진료를 의뢰한다. 또, 치료후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발정징후를 잘 관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 (2) 수의사의 처치

직장검사에 의해서 난소와 자궁등의 이상을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후는 경제적으로 치료효과를 판정해야 한다. 또 사양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에 방

난소질환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사양관리, 특히 급여사료의 질적, 양적인 부족, 사양환경의 불량 등, 미경산우는 육성기, 경산우에서는 주산기(周産期)에 있어서 전신성질환에 의한 이상의 대책이 주안이 되고 있다.

젖소우군중의 불임소를 조기에 적발하여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젖소마다 번식장애의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우군전체의 번식성적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수의사에 의한 월1회 또는 월2회 정도의 정기적 종합적인 번식검진은 효과가 있다.

한편, 사양관리의 분실, 특히 사료급여의 질적, 양적인 부족은, 번식장애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군전체의 영양진단을 통한 적절한 사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

